

현대오일, ExxonMobil에 벙커C유 공급

1년 장기계약 6400만달러 수출 ... 중국 집중에서 수출선 다변화 성공

현대오일뱅크는 미국의 ExxonMobil과 고유황연료유(HSFO: High Sulphur Fuel Oil)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월19일 밝혔다.

ExxonMobil은 세계 최대 석유기업(매출액 기준)으로 1년간 6400만달러의 HSFO를 수출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2008년 경질유 제품과 벙커C유의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ExxonMobil의 벙커C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품질의 벙커C유를 공급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3월18일 서울 남대문로 서울사무소에서 현대오일뱅크 S&T본부장 김두진 전무와 ExxonMobil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소재)의 Khojama Kalimuddin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계약식을 가졌다.

국내 정유기업들은 그동안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한 벙커C 제품을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해 왔으나 현대오일뱅크는 ExxonMobil에 수출함으로써 벙커C의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 공장에서 생산한 HSFO 제품을 연간 4억달러 가량 수출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9>